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가게를 비우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내 권리금 청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7,927만 원

반소 인용

상가 인도 청구에 대응한 손해배상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 (본소) 건물명도
2021가단 (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3㎡를 인도하라.

※ 문서 작성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작성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3.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인정사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임차인인 의뢰인은 점포 인도 문제에 대응하면서 권리금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했습니다. 가게를 비워야 하는 문제와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문제는 서로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소송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금전 청구도 함께 제기한 사례입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건물 소유주가 바뀐 뒤 갱신 거절과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았습니다. 새 소유주는 가족과 직접 제과점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점포를 넘기는 문제와 함께, 영업을 통해 형성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중요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인도 청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신규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방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의뢰인 자신의 청구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의 핵심

나가라는 요구 앞에서도, 받아야 할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나가라는 요구 앞에서도, 받아야 할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점포 인도와 함께 다툼 권리금. 해울은 7,927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점포 인도 소송을 당했지만 권리금 피해도 있다면?
-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약정이 무산됐다면?
- 응소와 함께 손해배상 반소를 준비하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하여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건물 인도 청구가 제기된 재판 안에서 의뢰인이 입은 권리금 손해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임차인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한편, 반소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7,92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점포를 비우는 문제와 권리금 손해의 배상을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인도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반환 의무뿐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 있는 청구권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의 핵심

점포 인도와 함께 다툰 권리금. 해율은 7,927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점포 인도와 함께 다툰 권리금. 해율은 7,927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가게를 넘길 기회를 놓쳐 투자한 돈이 걱정된다면?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에 계약 거절 사유가 남아 있다면?
- 인도 요구에 대한 대응과 금전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